[UCI]I804:24011-200000239218

2010년 2월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논문

健齋 金千鎰의 學文과 義兵活動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김 정 우

健齋 金千鎰의 政論과 義兵活動

Learning And Loyal Troops of Gun-jea Kim Chun-il

2010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김 정 우

健齋 金千鎰의 學文과 義兵活動

지도교수 이 종 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역사교육전공)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김 정 우

김정우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 종 범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성 한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경 숙 인

2009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目　　次

ABSTRACT

머리말

Ⅰ. 수학과 사우관계
1. 권신정치와 호남사림의 동향
2. 공부와 사우

Ⅱ. 관직생활과 기축옥사
1. 관직생활
2. 기축옥사와 김천일

Ⅲ. 의병활동과 평가
1. 재지적 기반
2. 근왕의병 활동
3. 제 2차 진주성 전투
4. 의병활동의 의의와 평가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Learning And Loyal Troops of Gun-jea Kim Chun-il

Kim, Jung-woo
Advisor : Prof. Lee Jong-bum
Major in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When Imjin-War broke out, Kim chun-il raised royal troops and moved north to start the royal troop movement based on 'Geun-wang'. His movement of the troops can generally be divided into two periods; one is the period when he raised the royal troops and stationed in Gangawhado and the other is the period when he led the second battle in Jinjoo City Wall. By his stationing in Gangwhado, the four provinces like Chung-chung, Jeon-ra, Pyung-an and Whang-hae could be directly connected, so it contributed to sustenance of the country and it strategically could give a pressure to its enemies in the rear. In addition to it, keeping Jinjoo City Wall to the end and then causing the incalculable damage to Japanese troops, he could prevent them from attacking Honam Province.

As a disciple of Il-jae Lee Hang, the great figure in Honam, Kim chun-il had close relationships with the scholars mainly from Seo-in. Moreover, considering the tendency of Lee Hang's study, which was closer to Seo-in, Lee Hang's scholars were naturally likely to be absorbed into Seo-in rather than Dong-in.

On the contrary, there were perpetual frictions between the two factions such as the argument on ceremony with Jung Gae-chung who was the

representative scholar from Dong-in of Naju. When the two parties were pitted against each other, Kim Chun-il became the principal of Gyeonghyeonseowon as the successor of Jung Gea-chung and he could hold sway over Hyang-ron after Gi-Chuk Trial. Therefore, this supportive foundation became the great ground for his royal troop movement and it helped scholars from Seo-in tremendously lined up under his control.

On the other hand, there is an opposite view on Kim Chun-il, relating to the cause of the defeat of the second battle in Jinjoo City Wall. According to 『Jingbirok』, written by Yoo Sungr-yong, the collapse of Jinjoo City Wall resulted from Kim Chun-il's fault. According to 『Jinjoosusa』, authored by An Bang-joon, however, it mentioned that he did not understand the view of Yoo Sung-yong. He also said that the reason of the defeat is that, unlike the first battle of Jinjoo City Wall, outer military forces hadn't been provided. The gap of the views shows the differences of understanding between Dong-in and Seo-in. Nevertheless, both Dong-in and Seo-in highly esteemed the movement of the royal troops by Kim Chun-il's leadership.

머리말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관군이 무너지고 국왕과 조정이 의주로 피난하던 때에 호남은 국가의 保障處였다. 이순신의 수군이 바다를 지키면서 호남의 군사와 물력은 고스란히 보존되었으며, 또한 호남의 의병은 '自保鄕里'의 차원을 넘어 '勤王'을 내세우며 호남 이외까지 활동함으로서 전란 초기의 불리한 전세를 만회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때 호남의 의병장으로는 金千鎰・高敬命・崔慶會・朴光前 등이 선두에 섰다.

지금까지 임진의병장에 대한 연구 성과는 상당한 분량에 달한다. 그러나 연구가 전쟁 기간의 의병활동에 집중된 나머지 이들의 사상과 학문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또한 의병장으로 나서기 이전 이들의 정치활동이나 사우 및 붕당관계도 부수적으로 다뤄지고 있었다.

이 글은 김천일의 의병활동만이 아니라 學文과 師友를 다루는 점에서 일차적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관직에 진출한 이후 교유관계 뿐만이 아니라 향촌 차원에서의 인간관계를 검토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이러한 점은 비단 김천일 개인의 문제를 넘어 임진의병이 西人 재야에서 일어났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의병운동의 재지 기반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김천일은 호남에서 많은 학자를 양성한 一齋 李恒의 문인으로 당대에 이미 金麟厚와 盧守愼을 역방하면서 학문을 익혔으며, 이후에는 柳希春의 추천을 받았다. 그리고 당시 서인의 지도자로 부상한 朴淳을 비롯하여 成渾과 鄭澈과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이외에도 벼슬을 은퇴하고서는 나주를 중심으로 후학을 양성하고 東方五賢을 배향한 나주서원(오늘의 景賢書院)의 2대 원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한편 나주에서 강학하던 鄭介淸과는 禮論을 둘러싸고 갈등 대립하는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그는 당론에서는 서인이었으며, 굳이 학파로 구분하자면 당시 정개청을 중심으로 영향력이 대단하였던 화담계열에 반대하는 입장의 학인관료였다. 호남에서 가장 먼저 창의하여 근왕을 표방하고 북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실제 전란 초 김천일의 활약은 대단하였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강화도로 진출하여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전열을 정비하였으며, 수원 및 행주산성전투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진주성을 지킴으로써 호남을 보전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의병활동은 전체적인 구도에서 주목을 받기는 하였지만, 의병활동의 독자적 성격과 역할은 아직도 미진하다고 하겠다. 또한 의병활동에 대한 당대 평가 또한 선명하게 나뉘었다. 따라서 이 글은 마지막에서 김천일 의병활동을 사실적으로 재구성하면서 특히 진주성 전투의 의의를 분명히 하면서 당대 평가의 전략적 관점과 붕당적 성격을 추가하고자 한다.

Ⅰ. 수학과 사우관계

1. 권신정치와 호남사림의 동향

金千鎰의 본관은 彦陽이고 字는 士重, 號는 健齋로 高麗侍中 就礪의 14대손이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전라도에 거주하였으며 옛집은 昌平縣 台山里에 있었으나, 아버지 彦琛이 暘城 李氏에게 장가가면서 처가가 있는 나주에 정착하였다. 그는 중종32년(1537) 나주에서 태어나지만, 어버지 彦琛과 어머니 暘城 李氏가 세상을 일찍 떠나 외조모 슬하에서 성장한다.

중종 32년(1537) 이후 정계에 재등장하여 꾸준히 성장해 온 사림세력은 大尹을 지지하며 仁宗의 등극과 함께 정치적 입장이 강화되었다. 사림계 신료들은 臺諫職을 중심으로 小尹을 견제하는 한편 公道政治를 표방하던 己卯士林의 정국 운영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활동하고 있었다.[1)]

그러나 인종이 즉위 7개월 만에 죽고 明宗이 등극하자 외척 尹元衡을 중심으로 戚臣政治가 이루어진다. 이 배후에는 文定王后가 있었다. 12세의 어린 명종이 즉위하자 관례에 따라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였고, 이를 계기로 윤원형의 소윤세력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었다. 명종의 친정 이후에도 문정왕후는 '나와 윤원형이 아니었다면 상에게 어떻게 오늘이 있었겠소'라는 말로 명종과 자신 및 윤원형의 관계를 새삼 확인하려 하였다.[2)]

이에 공적 권력관계를 일탈한 명종과 문정왕후 사이에 권력 배분 관계가 형성되었다. 문정왕후는 왕권을 빙자하여 사적으로 남용하면서 특히 內需司에 직접 中使를 파견하는 등 독자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려 하였고, 윤원형 등 외척권신들은 議政府・六曹・郎官・備邊司 등 주요 정치 기구를 수중에 두고 국정을 농단하였다.[3)]

또 윤원형 등 외척권신은 그들을 탄핵하려는 일군의 사류를 축출함으로써, 사림의 성장을 저지하고 그의 정치적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했다. 그들은 당시 사림을

---

1) 한춘순, 「명종대 을사사화 연구」, 『인문학연구』,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8, 325~327쪽
2) 「明宗實錄」 20년 11월 18일 '非我與元衡 上安得有今日乎'
3) 한춘순, 「명종 친정기의 권력관계 변화와 정국동향」, 『조선시대사학보』 12, 조선시대사학회, 2000, 10쪽

기묘사림의 黨流로 인식하고 乙巳士禍를 일으켜 제거하였으며, 이후에도 '양재역벽서사건', '安名世사건' 등을 통해 끊임없이 탄압했다.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성장하려는 사림이 제거됨에 따라 정치세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명종은 또 다른 외척인 李樑을 발탁하여 훈척 체제를 극복하려는 대안적 방안을 선택하게 된다.[4] 이로써 대비의 외척과 중전의 외척이 정국을 농락하고 왕실의 권위가 추락하는 '君弱臣强'의 시대가 되었다.

왕권이 약화되고 정치 기강이 문란해짐에 따라 지방에서도 양반들의 토지 겸병과 관료들의 과도한 수취로 농민들의 몰락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또한 조선 초기 이래 누적되어 온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과 명종代 심화된 정치 파행 양상이 중첩되어 급기야 민심이 이반되었고, 국가가 망해간다는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었다.[5]

李滉, 曺植과 같은 일군의 학자들은 조정에 나아가지 않는 대신 향리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제자를 양성하며 미래를 준비하였다. 이들은 점차 공부하는 방법이나 학풍에 따라 차이가 생겼고 이에 따라 퇴계학파, 남명학파 등의 학파가 형성되었다. 퇴계가 주자성리학 위주였다면, 남명은 성리학을 중심으로 노장사상이나 양명학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6]

나아가 처세관이나 지역 기반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퇴계학파는 '難進易退'를 모범으로 하여 경상좌도에, 남명학파는 '士尊官卑論'에 따라 재야 본위의 처세관을 견지하며 경상우도를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천지가 생물에 은택을 베풀 듯이 군주도 인정을 베풀어 민생을 북돋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상호 소통과 연계의 망을 갖추어나갔다.

이때 호남에는 金麟厚·盧守愼·李恒 등이 학문을 주도하며 학계를 활성화시키고 있었다. 김인후는 金安國과 崔山斗 등에게 배웠으며, 인종이 죽자 사직하고 장

4) 한춘순,「명종 친정기의 권력관계 변화와 정국동향」,『조선시대사학보』12, 조선시대사학회, 2000, 38쪽
5) 김성우,「선조대 사림파의 정국 장악과 개혁노선의 충돌」,『한국사연구』, 한국사연구회, 2006년, 37쪽
6) 신병주,「16세기 남명 조식의 사상 형성과 현실 대응」,『한국사상사학』, 한국사상사학회, 2008, 310~316쪽

성에서 후학을 양성하였다. 그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주자성리학에 충실히 따르면서 主理論的 입장에 가까웠다.[7] 그는 理와 氣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理와 氣를 같은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반대하고 理의 우위성을 인정하였다.[8]

盧守愼은 장인인 李延慶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乙巳士禍로 호남에 유배되어 19년간 생활하며 김인후·이항 등과 교류하였다. 그는 羅欽順의『困知記』에 영향을 받아 道心은 性이며 人心은 情이라고 정의하며, 道心이란 天理가 마음 속에 갖추어진 것이며 이런 天理가 氣를 타고 드러난 것이 人心이라고 생각해 정통 주자학과는 차이가 있었다.[9]

이항 또한 태인에 머물며 후학을 양성한다. 그는 理란 氣 속에 있으며 영원불멸하는 것으로 理氣不雜을 강조하며 理와 氣는 渾然한 一物이라고 주장한다. 人心道心說에서는 人心과 道心을 모두 理와 氣가 交發하는 것으로 보고 모두 已發이며 情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理氣說은 일원론적 입장을 취하는 徐敬德, 李珥와도 그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理氣說에서는 나흠순의 영향을 받은 반면 인심도심설에서는 정통 주자학적 모습을 보여준다.[10]

이들은 서로 서신을 통해 理氣說과 人心道心說에 관해 활발히 토론하였으며 이 결과 호남에서는 李滉과 奇大升의 四端七情論爭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主理과 主氣의 사상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11]

2. 공부와 사우

김천일이 공부하던 시기는 임꺽정의 난이 일어나는 등 정치 · 사회적으로 불안이 고조되는 때였다. 특히 그가 19세 때인 명종 10년(1555)에는 乙卯倭變이 일어나 전라도 연안 일대가 노략질 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김천일은 당시 豪傑之士로 이름이 높은 一齋 李恒을 찾아가 수학한다.

---

7) 오병무,「하서 김인후의 성리철학」,『동양철학연구』제 36집, 동양철학연구회, 2004, 72~75쪽
8) 고영진,「하서학과 호남사림의 동향」,『국학연구』제 7집, 한국국학진흥원, 2005, 95쪽
9) 조성을,「노수신의 학문과 정치활동」,『남명학연구』3, 1993, 56쪽
10) 정대환,「一齋 李恒의 性理學(一)」,『동서철학연구』25호, 한국동서철학회, 2002, 65~69쪽
11) 정대환,「一齋 李恒의 性理學(一)」,『동서철학연구』25호, 한국동서철학회, 2002, 46쪽

이항은 '배우기를 쉬지 않으면 모든 이치가 절로 통한다(學不息 萬里自通)'고 하는 자강불식의 지속성과 주밀성을 가지고 학문에 정진하였다.[12] 시조 「泰山歌」는 바로 이항의 학문 경향을 잘 드러내주는 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3] 그는 후진 양성에도 철저하여 제자들은 쉬는 틈에도 이 시조를 불러야 했다.

이항의 문하에서 김천일은 『小學』과 『大學』을 중심으로 공부한다. 이항이 5일간 식음을 廢하라고 명하자 김천일만이 스승을 따라 평소와 다름없이 강독했다고 하는 일화는 그가 이항의 학문자세를 충실하게 따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14]

김천일은 이항의 소개로 당시 호남의 巨儒들을 만날 수 있었다. 명종 13년(1558) 22세가 된 김천일은 이항의 사돈인 河西 金麟厚를 만난다. 김인후는 고단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련만 시련을 잊고 정진하는 그를 보고 '實을 얻은 선비를 남주에서 처음 보았네'라고 감탄하며 이별할 때 시를 지어주며 격려해준다.[15]

종이 창문에 눈보라 칠 때	紙窓風雪時
멀리 정자 대문 앞의 뜻을 잊지 말게	遠憶程門志
자강하는 마음을 바꾸지 말고	勿替自强心
천지간에 우뚝 밝게 서게나	昭然立天地
바야흐로 봄바람이 세차게 불 때	正是春風浩蕩時
옛 사람은 성은 인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네	昔人言性自仁推
조용히 함양하여 바야흐로 즐거움을 알면	從容涵泳方知樂
인과 애는 효를 따라 베풀어진다네	仁愛皆從孝上施[16]

송나라의 큰 학자 程頤를 뵈러간 제자가 스승이 눈을 감고 있으니 문밖에서 기다렸는데 눈이 석 자나 쌓였다는 고사를 인용하면서 自强不息하는 마음으로 꾸준

12) 정병련,「일제 이항의 이기일물설 변증」,『범한철학』,범한철학회, 1994
13) 이 시조는 이항의 문집에 실려 있으며, 이항의 처지와 너무 흡사하게 어울리고 趙涑의 증언에 따르면 태인으로 올 때 지어 불렀다고 한다.(김수업,「시조 '태산이 높다 하되 ... '의 지은이에 대하여」『배달말』14호, 배달말학회, 1989)
14)『健齋集』부록 권 3 「年譜」명종 22년 '一齋嘗聞南報 謂諸生曰 此亦亂世 不可一任安逸 乃廢食五日 驗其筋力 言語動息 無異平日 講讀不輟 精彩彌露 諸生莫及 惟先生及之' 한국문집총간 47권, 35쪽
15)『健齋集』부록 권 3 「年譜」명종 13년 '往拜金河西先生麟厚 河西叩其所學曰 實得之士 吾於南州 始見此人 臨別 贈五七二絶句' 한국문집총간 47권, 34쪽
16)『健齋集』부록 권6 「贈金士重」한국문집총간 47권, 77쪽

히 공부하여 孝를 통해 仁愛를 실천하라고 가르친 것이다.

명종 16년(1561)에는 羅士憑과 함께 진도에 유배와 있던 盧守愼을 찾아가 經義를 강론한다.[17] 노수신은 진도에 유배된 이후 김인후, 이항 등과 서신을 통해 여러 차례 학문을 토론하였으나, 정통주자학과는 차이가 있어 그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는다.[18] 김천일이 처음 노수신을 찾아간 것은 바로 이항과 노수신 사이에 토론이 시작된 때였다.[19] 노수신은 비록 이항은 만나지 못해 아쉬웠지만, 김천일과 나사율 두 사람이 찾아오자 반갑게 맞이하며 시를 지어준다.

일재를 꿈에 보지 못한지 오래러니	不夢一齋久
도리어 명의 젊은 선비를 만났네	還逢二妙新
서로 남은 회포를 전하면서	相傳只餘論
스스로 고독한 신하임을 깨달았네	自警獨孤臣
금리에 맑은 거문고 밤이요	錦里淸琴夜
燕山에 흰 국화 피던 때로다	燕山白菊辰
취한 노래를 화답한 이 역시 있으니	醉歌猶有和
늙은이의 흥취 어찌 신나지 않으리	老興豈無神[20]

그리고 명종 20년(1565)에는 김천일 또한 노수신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의견을 밝힌다. 그는 먼저 인심도심설이 '萬古에 敎를 세운 근본'임을 말하고, '朱子가 程子의 舊說에 우연히 미치지 못하였다'[21]는 노수신의 견해에 대해 질문한다. 程子의 舊說이란 '人心은 人欲이고 道心은 天理이다'는 말로 인심을 惡으로 도심을 善으로 보는 노수신의 인심도심설의 기본 명제를 말한다.

> 주자가 '人心은 善惡을 겸한 것이라' 것은 道心은 오직 微하다는 설의 중복임을 보통 학자도 알거늘 하물며 문공이랴? … 대개 道心이 人心의 밖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人心은 참람하고 장황하여 정답지 못함에 흐르기 쉬우니 불가불 性命의 근원이 발현하여 그

17) 『蘇齋集』「年譜」명종 16년 '有答羅士憑金千鎰論人心道心書'
18) 황구하,「소재 노수신의 심학」,『양명학』제 10호, 한국양명학회, 2003, 144~149쪽
19) 『蘇齋集』「年譜」명종 16년 '有答羅士憑金千鎰論人心道心書'
20) 『健齋集』부록 권6 「謝金士重羅士憑」한국문집총간 47권, 77쪽
21) 『健齋集』권3 「上盧蘇齋書」'伏讀來敎 云朱子因程子舊說 而偶未之及 不肖之惑滋甚' 한국문집총간 47권, 13쪽

치지 않은 것을 말해야하므로 人心道心의 기미와 발단을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없던 것입니다.[22]

김천일은 마음을 虛靈知覺의 본체로 생각하고 理(性)와 氣(人欲)를 지각하는 것이 인심·도심이라는 주희의 인심도심설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하나의 마음 속에 善惡을 겸비한 人心은 正을 잃기 쉬워 人欲에 치우치기 쉬우니 도심은 미약(微)하다는 말의 중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은 人欲에 치우치기 쉬운 人心을 억제하고 天理를 지각하여 실현하려는 道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김천일의 생각은 人心과 道心을 모두 理와 氣가 交發하는 것으로 보고 주희처럼 모두 已發이며 情이라고 생각한 이항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명종 18년(1563) 나주로 돌아온 김천일은 覆巖江 가에 집을 짓고 克念堂이라고 편액을 걸었다. 이에 이항 또한 시를 보내 축하해 주었고 朴淳·白光勳 등 당시 호남의 명사들이 찾아와 복암강에서 노닐며 이곳에서 학문을 토론함으로써 극념당은 이 지역의 소통의 공간이 되었다.[24] 高敬命 또한 후일 이곳을 찾아와 김천일과 극념당의 뜻을 되새긴다.[25]

성인과 미치광이는 한 생각에서 나누어지니	聖狂分一念
잠깐 사이라도 경계를 놓치지 마세	造次戒垂堂
털끝만도 잘못한 바가 있다하면	毫芒有所失
마침내 만 길의 구렁에 떨어지리라	終墮萬仞岡
편액을 건 뜻이 구차하지 않으니	揭扁意不苟
옛 성인의 가르침이 깊구나	古聖垂訓長
마땅히 극념당의 위에서	當於克念上
힘을 합쳐 노력하세	同力如挽强[23]

22)『健齋集』 권3 「上盧蘇齋書」‘蓋朱子旣言人心兼善惡 則道心惟微之說 似有重複者 雖學者可見 而況文公乎 … 夫道心非能出於人心之外 而人心却有僭竊張皇 易流於失正 不可不亟言性命源頭發見之不停者’ 한국문집총간 47권, 13쪽

23)『健齋集』부록 권6 「謝金士重 羅士慄」한국문집총간 47권, 77쪽

24)『健齋集』부록 권6 한국문집총간 47권, 77쪽

이항「題克念堂」‘克念堂前水 溶溶活不息 指以通大海 猶似知歸宿 所以感尼父 萬世爲學則 同異且異同 萬殊通貫一 誰是聞一貫 鳶飛同魚躍’

박순「題金士重書齋」‘雲水橫分地 茅茨靜者堂 渚花春映日 松雨夜鳴岡 荷葉裁衣淨 韋編度歲長 從來知道少 憐子志彌强’

백광훈「伏巖江上 敬次思庵相公韻」‘久厭城中地 新成野外堂 孤村隔江路 百里入雲岡 源遠流因肆 根深幹

克念이란『書經』의「多方」편에 나오는 말로 '오직 성인도 생각하지 않으면 미치광이가 되고, 미치광이도 능히 생각한다면 성인이 된다(惟聖罔念作狂 惟狂克念作聖)'라는 구절에서 유래하였으며 잠시라도 생각을 잃지 말고 경계를 지킬 것을 당부한 것이다. 이후에도 고경명은 김천일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였다.

김천일은 호남의 학문이 발달하던 시기 이항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이항의 학문은 이기이원론과 이기일원론의 중간 단계로 이원론에 반대하는 일원론의 과도기적 위치에 있다.[26] 따라서 김천일을 비롯한 이항 계열의 학자들은 학문적으로 서인 계열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김천일은 박순・고경명 등 주로 서인계 인사들과 활발히 교류하였으며, 특히 서인의 영수가 되는 鄭澈과는 사돈관계를 맺을 정도로 돈독한 교분을 쌓고 있었다.

自長 依歸今有所 終始志須强'

25)『健齋集』부록 권 3 「年譜」선조 14년 '高霽峯來訪同遊覆巖江舍有詩' 한국문집총간 47권, 36쪽

26) 정대환,「一齋 李恒의 性理學(一)」,『동서철학연구』25호, 한국동서철학회, 2002, 450~451쪽

Ⅱ. 관직생활과 기축옥사

1. 관직생활

선조 1년(1568) 유일의 선비를 천거하라는 유지가 내리자 羅州牧使 韓輹은 羅士忱과 함께 김천일을 효행으로 천거하였으며, 柳希春 또한 전라감사에게 김천일을 추천하였다.[28] 일찍이 유희춘은 김천일을 보고 '의리와 사물을 체득한 것이 명백하니 참으로 益友라 할만하다'고 격려해 준 적이 있었다.[29] 그러나 김천일은 유희춘에게 편지를 보내 병과 어리석음을 핑계로 아직 관직에 나갈 뜻이 없음을 내비친다.

> 천일은 학식과 생각이 혼매하여 항상 일신의 운기에 조섭을 잃어버려 지난 가을부터 병을 얻은 것이 침중하여 거의 안식의 날이 없으므로 지금은 더욱 寒病을 얻어 고질의 징후가 되었습니다. … 15세가 가깝도록 천자도 배우지를 않아 사방도 분간을 못한 어리석고 방탕하기 짝이 없었는데 성장하여 나가보니 다 책을 끼고 학업을 익히는데 나 혼자 무지함을 부끄러움이 없지 않아 비로소 향학의 뜻을 두었습니다. … 만일 선생이 이 뜻을 깊이 살피셨다면 반드시 측은히 생각하여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뤄지게 할 것이어늘 어느 여가에 급하지 않은 천거를 함이 있겠습니까.[27]

유희춘은 이런 김천일의 뜻을 받아들이고 경연석상에서 병으로 벼슬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 藥物을 내려 포창할 것을 건의한다.[30] 또 어진 인재는 조급하게 작은 관직에 쓰지 말고 대성하기를 기다려 중용할 것을 말하였다.[31]

---

27)『健齋集』권3 「上柳眉庵書」'千鎰識慮皆昧 故常失調攝一身之運氣 而自去年秋 得疾沈綿 殆無安息之日 玆以旣未出拜於南平 今又加得中寒之疾 … 年近十五 不學千字 未分四方 愚癡無狀 放浪無類 而旣冠出遊儕輩皆挾冊肄業 而身獨蚩蚩 不能無愧恥之發 始有向學之意 … 若先生深察此意 則必有憐惻之情 而使之成人之美 何暇有不急之薦乎' 한국문집총간 47권, 13~14쪽

28)「宣祖實錄」선조 1년 5월 10일 '全羅監司書狀 因遺逸之士薦擧有旨 訪問各官 … 金千鎰 氣質溫粹 力行學問 早喪父母 鞠於外祖母 不離膝下 如事親母 心喪三年 至於啜粥 聞者莫不敬服 云云 傳曰 羅士忱等行實 至爲可嘉 褒奬事 今該曹議于大臣'

29)『健齋集』부록 권4 「行狀」'眉巖柳先生 一見亦曰 義理事物 體認明白 眞益友也' 한국문집총간 47권, 44쪽

30)『眉巖日記』'希春以千鎰方纏疾病 不堪從仕 願姑培養爲言 上亦以爲然 到今思之 千鎰病日益深 死日益迫 若無褒恤之恩 恐有後時之悔 欲於經筵 乞下書監司 救恤藥物 以表一方之善士云'

5년 뒤인 선조6년(1573) 김천일은 趙穆・李之菡・鄭仁弘・崔永慶 등과 함께 學行으로 천거되어 관직 생활을 시작한다. 처음 군기사 주부에 제수되고[32] 이어 가을에 용안현감이 된 김천일은 실무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여주목사 黃琳, 해주목사 李遴과 함께 治積이 좋은 곳으로 선정되었다.[33]

이후에도 그는 주로 지방관으로 부임하였으며, 가는 곳마다 선정을 베풀었다. 특히 수원부사 시절에는 부세를 균등히 하다 토호들과 마찰을 빚고 탄핵을 받아 벼슬을 그만두기도 하였으며, 임실에서는 부역을 균등하게 하고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다고 한다.[34]

선조 9년(1576) 김천일이 경상도 도사에 제수되었을 때 스승인 이항의 상을 당하고 동문인 奇孝諫・邊士貞 등과 함께 장례를 지낸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스승을 부모처럼 따랐던 김천일은 그 슬픔이 더하였을 것이다. '망망한 전통이 떨어졌으니 누구를 다시 찾겠는가, 실성하고 길이 없이 부르짖으니 피눈물이 내려 옷깃을 적시네'라고 탄식하며, 스승의 추모 사업에 전력을 다한다. 묘갈명은 許曄을 통해 盧守愼에게 부탁하고, 자신은 동문들과 이항의 행장을 짓는데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다음해 태인에 南皐書院을 세워 이항을 배향한다.

선조 11년(1578) 사헌부 지평에 제수된 김천일은 입시하여 시폐를 논하고 현재를 등용할 것을 청한다. 그러나 아무런 답도 얻지 못하자 의기가 저상되어 마침내 병을 핑계로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35]

선조 15년(1582) 김천일은 순창군수를 제수 받고 다시 관직에 오른다. 이듬해(1583) 牛溪 成渾이 이조참판에 특배되자 김천일은 편지를 보내 관직에 나갈 것을

---

31)「宣祖實錄」선조 1년 6월 9일 '希春趨啓曰 千鎰之篤志治心, 臣亦知之 但年纔三十二歲, 方治學問 又多疾病 不願以虛名筮仕 正如漆雕開之意也 正宜優容培養 待其大成 不宜遽用於百執事'

32)「宣祖實錄」선조 6년 6월 5일 '以洪渾爲正言 趙延機爲校理 朴漸爲副修撰 金千鎰爲軍器主簿 申點爲修撰 尹希吉爲獻納'

33)「宣祖修正實錄」선조 8년 7월조 '上問吏曹曰 當今治郡第一爲誰 吏曹以驪州牧使黃琳 州牧使李遴 潤縣監鄭仁弘 龍安縣監金千鎰對'

34)『健齋集』부록 권3 「年譜」선조 14년 '任實民 爲豎去思石 書曰平賦役 奬孝順 育人材 享耋老 厲民俗 除宿弊 後有題碑後曰 一區籬落閒鷄犬 百里田園放馬牛 樂業方形增秩去 葛川和淚郡邊流' 한국문집총간 47권, 36쪽

35)「宣祖修正實錄」선조 11년 4월 '壬午朔/司憲府持平金千鎰 謝病歸鄕 千鎰以淸名 被擢爲持平 拜命後上疏辭職 不許 一日因入侍 極陳時弊 且請收用賢才 辭意懇切 累千百言 自辰至巳 而上不答 千鎰意沮 遂引疾遞免'

권유하며 인재를 고루 등용하여 각자의 역량에 맞는 합당한 직책을 맡김으로써 붕당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 조정은 붕당으로 나누어진 것이 병이 되어 식견이 있는 이도 편벽한 사람이 되어 꺼리고 시기를 한 위망의 화를 양성한 이때를 당하여 성상의 신뢰한 바가 된 이상 넘어진 국세를 붙잡아 상감의 소망을 맞게 아니할 수 없으니 크고 공정한 마음을 넓히고 쓸만한 인재를 사랑하되 그 기량을 다라 그 직을 충당하여 드디어 위험한 붕당의 무리로 하여금 군자는 크고 공정한 뜻이 있음을 알아 돌이켜 부끄러움을 알도록 교화에 훈도된 효험을 보게 하면 국가의 사민이 그 혜택을 받음이 클 것이고 저와 같은 천한 이도 능히 기원한 보람이 없지 않겠습니다.[36]

이즈음 士風이 날로 퇴폐해지고 경박해지자 김천일은 국가의 초석인 선비들이 이 같은 지경에 이렀으니 조정의 불화와 국가 병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상소를 올린다.

담양부사에 임명되고 가뭄으로 바른 말을 구하는 교지가 내리자 김천일은 다시 한 번 상소를 올려 당시 폐단을 극론한다. 그는 北胡의 준동과 형옥의 잔인함을 문제 삼고 성학을 밝혀 사습을 바르게 하고 재상을 존중하여 조정을 높이고 수령을 가려 방본을 튼튼히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2년 뒤인 1586년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제자들을 가르친다.

이듬해 선조 20년(1587) 흥양에 침입한 왜군이 전라도 남해안 일대를 노략질하는 일이 일어난다. 바로 정해왜변이었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김천일은 분개하며 그 대응책의 문제점과 상벌을 바로 잡을 것을 상소한다. 그리고 왜가 화의를 구하자 당시 재상이었던 柳成龍에게 방어 계책과 함께 화의를 배격하자는 편지를 보낸다.

---

36)『健齋集』권2 「與成牛溪書」‘朝著分朋病 是有識之士 皆化爲偏私之人 釀成忌克危亡之禍 當此之時 爲聖上所倚者 不可無扶顚之策 以副重望 必須推廣大公之心 愛惜可用之才 隨其器量 各充其職 遂使危險朋私之輩 知君子有大中至公之意 反見發愧渾化之效 則國家士民 受其賜矣 如生疏賤 不能無懇禱之至’한국문집총간 47권, 14쪽

2. 기축옥사와 김천일

안으로는 붕당의 폐해가 극심해지고 밖으로는 외적이 준동하는 가운데 선조 22년(1589) 己丑獄事가 일어난다. 특히 이 시기 호남은 사류 간의 대립이 극심하였다. 당시 鄭澈은 李潑의 탄핵을 받아 벼슬에서 물러나 昌平에 거주하며 이발·정개청 등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었다.

김천일 또한 정개청과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다. 선조 9년(1576) 김천일이 경기도 도사로 있을 때 스승인 이항이 세상을 떠났다. 김천일은 물론 즉시 달려와 문상하였으나, 임지를 오래 비울 수 없어 장례가 채 끝나기도 전에 돌아가고 만다. 그러자 나주 사족 사이에서 너무 가볍고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 羅德明의 물음에 정개청은 스승에도 차이가 있으니 禮도 한결같을 수 없다고 답한다.

> 스승의 은의에 대한 가볍고 무거움과 깊고 얕은 바의 차등은 한결 같지 않은 것이니 훈계하여 타이르는 스승이 있고 문장 공리의 스승이 있으며 종유하고 수학하는 스승이 있는가 하면 수업전도의 스승이 있고 대성, 대현, 차현이 있는 것이니 그 도덕의 크고 작음과 은의의 가볍고 무거움을 보아 상복을 저울질함으로 상기가 3년이기도 하고 1년, 9개월, 5개월, 3개월이기도 하여 스스로 그 등분이 있는 것이다.[37]

그리고 김천일의 경우 부모를 일찍 여의고 스승을 부모처럼 따랐기 때문에 부모상에 준하거나 심상 3년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스승이 돌아감에 마침내 잊고 거스르니 인의를 잊은 자이다'라며 비판을 가한다. 이것은 '排師論'으로 전달될 소지가 있었다.

김천일은 화가 났을 것이다. 그는 '儀典의 예는 천박하고 고루하여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정개청은 더욱 신랄하게 비판한다. 결국 단호한 언변으로 인해 정개청은 김천일과 그를 따르는 사족 집단으로 원망을 샀다.[38]

---

37) 『愚得錄』 권2 「答羅有之書」'但所謂師者 其恩義之輕重淺深差等不一 姑擧其二二 則有句讀訓誥之師 有文章功利之師 有從遊受學之師 有受業傳道之師 或大聖或 大賢或次賢 觀其道德之大小 恩義之輕重而權其服而已 或三年 或期功緦 自不能無等分矣'

38) 이종범, 「정개청-운명은 어쩔 수 없어도 세상은 바꿀 수 있다」, 『사림열전』 1, 아침이슬, 2006,

이후 김천일은 원생들과 마찰을 빚고 물러난 정개청을 대신하여 景賢書院의 원장이 된다.[39] 경현서원은 나주에 최초로 건립된 서원으로 선조 17년(1584) 목사 金誠一의 주도로 건립되었으며, 金宏弼・丁汝昌・趙光祖・李彦迪・李滉을 봉사하였다. 당시 나주를 대표하는 서원으로써 동서분당 이후에는 원장직 뿐만 아니라 원생 내부에서도 당색에 따라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준다.[40]

이런 상황에서 김천일이 東人의 대표 학자라 할 수 있는 정개청의 후임으로 원장에 취임하여 분란을 종식시킨 것은 그가 나주에서 西人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김천일이 담양부사 시절 선정을 베풀어 부민들이 계속 머무르기를 청원했으나 이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었다.[41]

유생 梁千會의 상소로 호남에서도 옥사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친다. 이 과정에서 鄭汝立과 연결됐다는 혐의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화를 입게 되고 민심이 어지러워진다. 이즈음 군자감 정을 제수받고 다시 등용된 김천일은 상소를 올려 처참한 상황을 전한다.

> 신이 시골에 있을 때에 기황이 든 백성이 조석 사이에 흩어지게 된 것을 보았고, 또 적변으로 달마다 소동이 있었는데, 적을 체포하여 호송하는 군사가 굶주려 쓰러지면서 부르짖으며 원망하는 소리가 도로에 전파되어 귀로 차마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잇달아 듣건대 남쪽 지방 백성의 소요가 다시 전일보다 더 심하고 연좌되어 갇힌 사람이 열읍의 감옥에 가득 차고 체포하는 군졸이 원근의 도로에 충만하다 하였습니다.[42]

308~311쪽

39) 경현서원 역대 원장
현감 정개청(동인) - 창의사 김천일(서인) - 생원 柳忍(서인) - 유학 李彦讜(서인) - 유학 李有海(서인) - 진사 柳瑛 - 羅德明(북인) - 생원 姜謂虎(북인) - 유학 羅德顯(북인) - 金佑成(북인) - 羅德顯(북인) - 찰방 金璇 - 승지 林埈 - 전참봉 羅海崙 - 판서 林墿 - 安邦俊(서인) - 羅緯素(남인) …
경현서원의 원장직은 정개청이 퇴임한 이후에는 서인계가, 광해군 때 중건된 후로는 북인계에서 인조반정 후에는 서인계와 남인계가 장악하고 있다. (김동수, 「기축옥사와 호남 사림」,『기축옥사 재조명』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제2회 학술심포지엄, 2009, 10쪽)

40) 김동수,「기축옥사와 호남 사림」,『기축옥사 재조명』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제2회 학술심포지엄, 2009, 11쪽

41)「宣祖修正實錄」선조 19년 10월 '憲上疏 因論學政之弊 而極言時事 其疏曰 … 金千鎰 李恒之門人也 行己治民 不負所學 秉彝好德之天 最所全有者也 心知珥善 而一不降辭色於時譽 則潭民借寇之願 至囑臺官而沮之'

이 같은 참상을 김천일은 나주에서 직접 목격하였을 것이다. 억울하게 연루된 사람이 나오고 옥사가 더 확대되자 그는 하루라도 빨리 옥사가 수습되기를 원했다. 비록 나주 지역의 서인을 대표하는 인물로 정개청 등과 갈등하고 있었지만, 김천일은 옥사가 신속하고 온건하게 종결되기를 바란 것이다.

> 대단한 연좌가 아닌데도 말이 힐문하는 무리에게 간련됨으로 인하여 오래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자도 많으니, 얼어 죽는 원통함이 없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성자께서는 인애를 베풀어 자세히 살피소서. 신은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을 견딜 수 없습니다. 삼가 살피건대, 밖으로는 나라의 근본이 이미 손상되었고 안으로는 심복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만일 급급히 수습하여 진정하는 방도가 없으면 치란의 기틀이 오늘날에 당장 판정되어 사태가 매우 급박하게 될 것입니다.[43]

이후 토호들의 탄핵을 받아 벼슬에서 물러났으나 김천일은 어지러운 정세를 걱정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성혼에게 편지를 보내 국난을 방관하고 구경하지 말고 직접 나서 조속히 옥사를 처리해 줄 것을 청한다.

> 가만히 생각해 보건데 영공께서는 국가의 후은을 받고 일찍이 몸을 바쳤으니 그 국난에 급히 하고 방관이나 구경만으로 구급한 일을 회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저 한 실중에 들어간 것이 협착하여 다시는 불을 피할 땅도 없는데 연기와 불길이 이미 실상에 번졌다면 불을 끄고 못 끌 것은 논한 것이 없으며 티끌과 연기가 더럽히고 안 더럽힌 것을 따질 것도 없이 급히 달려가 불을 끄려는 것이 인정의 본연이니 오늘 형편이 이와 같고 영공의 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44]

---

42)『健齋集』권2「己丑再疏」, 「宣祖修正實錄」선조 22년 11월 '臣在鄕時伏見 飢荒之民 朝夕將散 而又有賊變 彌月騷動 捕賊護送之軍 餓仆號怨之聲 播於道路 耳不忍聞 故頃已略達於陳疏之中矣 厥後連聞 南民之擾 更有甚於前日 而連坐囚人 盈溢於列邑之獄 捕獲軍卒 充滿於遠近之路' 한국문집총간 47권, 10쪽

43)『健齋集』권2 「己丑再疏」, 「宣祖修正實錄」선조 22년 11월 '臣在鄕時伏見 飢荒之民 朝夕將散 而又有賊變 彌月騷動 捕賊護送之軍 餓仆號怨之聲 播於道路 耳不忍聞 故頃已略達於陳疏之中矣 厥後連聞 南民之擾 更有甚於前日 而連坐囚人 盈溢於列邑之獄 捕獲軍卒 充滿於遠近之路' 한국문집총간 47권, 10~11쪽

44)『健齋集』권2 「與成牛溪書」'竊念 令公受國厚恩 曾已委質 其於急難 恐不可傍觀玩視 以避救焚之事也 蓋已入一室之中 窄狹更無避火之地 而煙焰已及於屋上 滅火之利不利 姑未可論 塵煙之汚不汚 又未及計 而急赴欲滅 人情之自不得容已者也 今日之勢如此 而令公之身當此也' 한국문집총간 47권, 14쪽

이때 호남 유생이 상소를 올려 성혼을 꾸짖는 일이 일어나 성혼은 사직을 결심하자 김천일은 적극적으로 나서 사직을 만류시킨다. 그는 俗儒의 나쁜 버릇이 극도에 이르렀음을 탄식하며 '유생의 부박한 말을 개의치 말고 중임을 잘 수행하고 인재를 사랑할 것'을 당부한다.

또 성혼과 정철에게 모두 편지를 보내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정국을 잘 이끌어 가기를 바란다. 성혼에게는 정철이 '포용하는 아량이 작고 일을 처리하는데 주밀하지 못 한'[45] 흠이 있지만, 성혼의 보필과 규계가 있으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태평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는 한편 정철에게도 사직을 만류하며 성혼과 서로 마음을 합한다면 정국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편지를 보낸다.

> 굳게 움직이지 말고 어리석은 것처럼 행동하며 시국을 진정한데 힘을 쓰되 나라를 돕는 자의 중심을 합하여 넘어짐을 붙잡는 꾀에 협력하면 비록 치평의 상사에 만회함을 보지는 못할지언정 가히 쇠시의 위급은 구할 것입니다.[46]

김천일은 당시 나주 지역 서인의 대표 인물로 기축옥사 당시 자신의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 그는 비록 정개청 등 기축옥사의 주요 인물들과 갈등을 겪었지만, 온건한 입장을 취하여 옥사가 조속히 종결될 수 있기를 바랬다. 한편 기축옥사 이후 혼란한 정국을 성혼으로 하여금 인사를 공정하게 하고 정철과 조화를 이루면 진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사람 사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자신은 나주에 머물며 사습을 교화하고 사론을 규합함으로써 민심을 안정시키려 하였다.

---

45) 『健齋集』 권2 「與成牛溪書」'松江旣小包容之量 又欠處事之詳' 한국문집총간 47권, 15쪽
46) 『健齋集』 권2 「與鄭松江書」'凝然不動 如愚周旋 務鎭依賴贊國者之衆心 以爲協力扶顚之丕計 則雖未見挽回治平之盛事 亦可或救衰時之危急矣' 한국문집총간 47권, 17쪽

Ⅲ. 의병활동과 평가

1. 재지적 기반

김천일은 관직에 물러나 나주에 은거하고 있을 때 壬辰倭亂을 맞이한다. 이미 정해왜변이 일어났을 때부터 그는 조만간 국가에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제자들과 함께 무예를 연마하며 兵事를 익혔다.[47]

김천일은 선조 25년(1592) 선조가 평양으로 몽진을 하고 한양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라의 기강이 문란하고 인심이 이탈되었음을 걱정하며 高敬命・朴光玉・鄭諶・崔慶會 등에게 편지를 보내 의병을 일으킬 것을 약속한다. 특히 고경명과는 5월 6일 潭陽에서 회합하였으며, 29일 고경명이 기병하던 날에도 담양에서 만나 거병에 관해 상의할 정도로 지속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김천일은 5월 16일 宋濟民・梁山龍・梁山璹・林懽・李光宙・徐廷厚 등과 함께 鄕子弟를 불러 모아 의병을 모집하기 시작한다.

> 국사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우리 무리가 어찌 구차히 살리요. 가령 살고자 한들 홀로 온전할 이치가 없는 것이다. 죽을 바에는 차라리 적을 토벌하다 죽는 것이 낫지 않은가?[48]

300여 명이 김천일의 뜻에 동조하여 의병이 되었으며, 병기와 식량도 차츰 갖춰져 갔다. 본래 김천일은 그의 부친인 彦琛이 처가에 들어오면서부터 나주에 거주하여 처음에는 재지적 기반이 상당히 미약했을 것이다. 그러나 김천일이 이렇듯 짧은 시간에 의병 활동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외가인 陽城 李氏의 지원이 컸다. 또 이 시기 김천일은 이미 나주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어있었다.

---

47)『健齋集』 부록 권3 「年譜」선조 20년 '時湖南有倭警 先生方家居 慨然於策應之乖方 賞罰之混施 上疏極言 因及朝廷分朋之禍 批曰 今見忠讜之言 良用嘉焉 常與諸生講學於克念堂 每於夕陽 馳馬習射 亦令諸生習戎馬之事 嘗夜觀天象曰 國家大禍 將在朝夕 豈可以安逸自處乎' 한국문집총간 47권, 37쪽

48)『健齋集』부록 권4 「行狀」'國事至此 吾輩何心苟活 藉令欲生 理無獨全 但早晩事耳 與其竄死於溝壑 不猶愈於討賊而死乎' 한국문집총간 47권, 46쪽

나사침이 목사의 부름을 받고 서원에 나아가 서원유생들을 뽑으려고 할 때에, 김천일이 사침에게 맨 윗자리를 양보하려고 하자, 사침이 이를 만류했는데, 이를 본 목사가 "향당은 나이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尼山이 마땅히 상좌에 앉아야 한다"고 하여 사침이 윗자리에 앉았다고 한다.[49]

이것은 1587년(선조20) 나주목사로 任允臣이 부임해 왔을 때의 일로 나사침과 김천일이 나주 지역의 사림세력을 주도하는 인물이었음을 보여준다.[50]

『湖南節義錄』에 기록된 文烈公金健齋同殉同倡諸公 45인의 명단에서도 김천일의 나주에서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명단에는 2차 진주성 전투에서 합류한 사람도 있어 이질 집단이 많이 포함되었지만 나주 16명, 남평 6명 등 반수 정도가 나주 지역의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병 초기의 인사 30명을 분류하면 나주 16명, 남평 3명 등 광주, 장성, 영암 각 2명, 함평, 무안, 순천, 순창, 곡성 등 10개 읍에 한정되며 특히 나주 출신 인사들에 집중되고 있다.[51]

비슷한 시기에 같이 기병한 高敬命 의병의 경우에는 광주, 남원, 남평, 영암 등 도내 21개 읍에 분포하고 있어 초기의 김천일 의병보다 많은 지역에서 의병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김천일이 화급한 거병의지를 가진 것과는 달리 고경명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였기 때문이다.[52] 실제로 고경명은 박광전·유팽로·양대박 등과 연합하여 潭陽會盟軍의 맹주로 추대되었으며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의병을 결집하여 6000여 대군을 결집하였다. 특이할만한 점은 고경명 군 휘하에 나주 출신의 인사가 한명도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비슷한 시기에 김천일이 나주에서 의병을 일으켰다는 점과 또 나주에서 김천일의 영향력이 컸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53]

---

49) 『錦湖遺事』「丁亥日記抄」'牧伯城主朝送人 期會于金潭陽士重家 薄晩進去 士重設水食以待 牧伯來臨穩話 … 牧伯酒酣 就執余手 願敎我無大夫政也云云 … 承牧伯之招 率明峻進書院 選揀書院儒生 而難於取舍僉議囂故也 金潭陽千鎰讓座於余 良久相推 牧伯乃曰 鄕黨莫如齒 尼山上座云 余乃首座'

50) 김문택,「호남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 -나주 경현서원을 중심으로」,『국학연구』11집, 한국국학진흥원, 2007 64~65쪽

51) 조원래,「임란기 호남의병과 의병지도층의 성격」,『임진왜란과 호남지방의 의병항쟁』, 아세아문화사, 2001, 13~14쪽

52) 조원래,「고경명의 의병운동과 금산성전투」,『임진왜란과 호남지방의 의병항쟁』, 아세아문화사, 2001, 171쪽

김천일 의병 내의 중간 지도층의 구성에도 학연이 크게 작용하였다. 김천일 군 휘하의 梁山璹는 成渾의 문인이고, 金光運·洪遠은 李珥의 문인이며, 崔希伋·洪民聖은 조헌의 문인이고 김천일의 문인으로는 徐廷厚·柳彙進 등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西人 계열의 인사들로 당시 고경명 의병을 비롯한 호남의병의 경우에 서인계 인사들이 주를 이뤘다.

학연은 의병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졌다. 이항의 제자인 黃進과 張潤은 제 2차 진주성 전투 때 김천일의 뜻에 동조해 진주성을 지키다 殉死하였으며, 同門인 邊士貞 또한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부장 李潛을 보내 김천일을 돕게 하였다.[54]

서인 계열의 인사들이 의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기축옥사 이후 향론을 장악하였고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군량과 무기를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호남 지역 동인의 경우에는 의병에 투신하여 활동하기 보다는 李舜臣·李福男 등의 관군의 휘하에 들어가 활동하였다. 이것은 호남 지역이 특히 학연에 얽힌 반목과 갈등이 심해 서인 계열 의병장의 휘하에 들어가기보다는 建儲 문제로 재집권한 동인 계열의 관군에 투신하였기 때문이다.[55]

2. 근왕의병 활동

임진왜란 초기 의병활동은 크게 '勤王義兵'과 '鄕保義兵'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56] 근왕의병이란 아직 적침을 받지 않은 지역에서 자진하여 왕의 주변을 호위하거나 타군을 응원하는 것이고, 향보의병은 자기 고장에 쳐들어온 적군을 물리치는 한편 적의 전후방을 차단하거나 보급로를 단절하는 등 진격을 더디게 하는 데 목적을 둔다. 향보의병이 자연발생적인 것이라면 근왕의병은 의지발생적인 것으로 김천일을 비롯한 호남의병의 경우가 근왕의병에 해당한다.[57]

---

53) 조원래,「임란기 호남의병과 의병지도층의 성격」,『임진왜란과 호남지방의 의병항쟁』, 아세아문화사, 2001, 10~15쪽
54) 『晉州敍事』'敵愾義兵將邊士貞聞事急 遣其副將李潛行'
55) 송정현, 「임진호남의병 기병고」,『전남사학』3, 전남사학회, 1989
56) 허선도, 「임진왜란론」,『한국사학론총』, 정음문화사, 1985
57) 조원래,「초전 방어실태와 근왕의병의 봉기」,『새로운 관점의 임진왜란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5, 68쪽

나라는 장차 위태하고 백성은 도탄에 빠졌다. 엎드려 원하노니 많은 선비와 용맹스러운 무부는 나의 글을 보고 나의 말을 들을 지어다. 돌아 보건데 지금의 문물은 모두가 선왕의 의관인데 저 왜노를 섬멸하는데 충용한 장군은 누구인가. 절의 있는 이 병을 모집한이 작으나 어찌 국가를 호위한 왕사가 없으며 뜻있는 이 떼로 일어 남은 죽기를 기뻐하는 의병을 얻으려는 것이다.[58]

김천일은 나라의 위급을 구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고, 의병 전쟁의 목표가 왕실을 지키는데 있음을 자임하였던 것이다.

김천일 의병은 6월 3일에 단독으로 서울을 향해 북진하기 시작한다. 최초의 근왕의병이었다. 김천일이 고경명 의병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북상한 것은 선조의 서천과 서울의 함락이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시일을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59] 그리고 관군의 후퇴 소식에 실망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라도 관찰사 李洸은 전쟁이 발발하자 관군을 소집하고 북상하지만 공주에서 해산시켜 버린다. 이에 실망한 김천일은 고경명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의병만이라도 먼저 북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행군이 湖西에 이르자 따르는 이가 수천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이때 전라, 충청, 경상 3도의 5만 군사가 용인에서 와키사카 아스하루(脇坂安治)의 군대에게 패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김천일 의병의 사기는 일시에 떨어진다.

그대들이 만일 나를 따르기 싫어한다면 어찌 강제로 내몰 수 있겠는가. 다만 왜적을 토멸하지 못한다면 비록 이 땅의 어느 곳을 간들 살길은 없다. 하물며 임금이 욕을 당하고 신하들이 죽어가는데, 그대들은 이 나라의 이백년 사직이 길러낸 백성들이 아닌가. 진실로 죽음을 각오하면 도리어 살 길이 있을 것이다.[60]

---

58) 『健齋集』 권4 「壬辰義檄」 '社稷將危 生靈塗炭 缺數句伏願濟濟多士 赳赳武夫 看我尺書 聽我瞽語 顧今文物 摠是先王之衣冠 殲厥巨奴 孰有將軍之忠勇 節士募少 寧無奔衛之王師 志士倡羣 要得樂死之義旅' 한국문집총간 47권, 22쪽

59) 조원래, 「김천일의 의병활동과 그 성격」, 『사학연구』 제31호, 한국사학회, 1980, 36쪽

60) 『健齋集』 권3 「行狀」 '汝等若不肯從 何可强驅 但此賊不滅 則雖登山入海 萬無生理 況主辱臣死 汝等孰非二百年養育之生靈乎 苟懷死心 轉有生道' 한국문집총간 47권, 46쪽

김천일의 호소로 의병은 겨우 안정될 수 있었다. 공주를 지날 때 趙憲이 찾아와 김천일과 의병을 일으키는 문제를 상의하였다.[61] 김천일도 막하의 宋齊民을 충청도로 보내 의병을 모집케 하고 조헌을 左義大將으로 추대한다.[62]

6월 28일 김천일 의병은 수원에 도착한다. 수원은 일찍이 김천일이 부사를 지낸적이 있어 일대의 지리에 밝았을 것이다. 김천일은 먼저 척후를 보내 상황을 염탐하고 대오를 정리한 뒤 禿城山에 진을 친다. 그리고 군사를 나누어 보내 적과 교전하여 여러 번 승리를 거둔다. 일종의 게릴라 전법을 펼친 것이다. 특히 金嶺의 적을 습격했을 때는 수급 15과를 베고 갑주와 무기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한다.

김천일 의병은 전라병사 崔遠의 군대와 합세하고 곧이어 安山으로 이동한다. 이때 분조를 이끌고 이천에 머무르고 있던 왕세자 光海君이 선전관 朴承宗을 보내 김천일을 첨중추 겸 방어사에 임명하고 諭書를 보낸다.

> 오늘날 국사가 십에 팔구는 갔으므로 밤낮으로 오직 왕사에 부지런한 병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는 소식이 없으니 지금에 제군이 의를 창하고 병을 일으켜 이미 경성을 박두하였다 하니 이는 실로 천지 조종이 묵묵히 도우시어 그러한 것이다. 종사의 존망이 오직 제군에게 달려있으니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살려 큰 공훈을 세우도록 하라.[63]

김천일이 근왕의병을 기치로 세우고 북상하여 전공을 세우고 있음을 격려한 것이다. 이즈음 군사가 많아지고 활동이 어려워지자 김천일은 江華島로 진을 옮기기로 결심한다. 먼저 從事 林懽을 보내 강화의 피난민을 개유하는 한편 배를 구하여 도강을 준비시킨다. 이때부터 선조 23년(1593) 4월 일본군이 도성에서 철수하기까지 약 7 ~ 8개월간에 걸쳐 강화도는 김천일 의병의 활동 거점이 된다.

이때 행조에 보낸 곽현과 양산숙이 돌아온다. 宣祖는 김천일이 의병을 일으켰다

---

61) 『健齋集』 부록 권4 「行狀」'至公州 趙重峯憲 亦欲起義 見公商議而去' 한국문집총간 47권, 46쪽

62) 『亂中雜錄』 임진년 칠월조 '濟民去月二十三日 從義將到水原 … 故一軍推鄙生 送募忠淸義兵 以淸梗路之賊 以通來援之兵 故來與忠淸士友 號召義徒 兩旬之間 得二千精兵 衆望共推 前都事趙憲 爲左義大將'

63) 『健齋集』 부록 권1 「東宮分朝諭書」'今日國事 十去八九 日夜惟望勤王之兵 而又無聲息。方懷惶迫之際 今聞諸君倡義興兵 已迫京城云 此實天地祖宗 默佑而然也 宗社存亡 惟在諸君戮力之如何 活國救民 懋樹大勳' 25쪽

는 소식을 듣고 그를 장악원판결사에 제수하고 倡義使의 號를 내려 의병활동을 격려하였다.[64] 또 교서를 내려 의병활동을 적극 지원한 호남의 士民을 위로한다.[65]

의병의 사기는 올라갔다. 이때를 기다려 김천일은 다시 의병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한다. 그는 전황과 군세가 불리함을 깨닫고 일단 전략을 바꾼다. 먼저 김천일은 일본군에 붙은 자를 설득하고 후일 도성을 공격할 때 내응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도성의 수복이라는 목표를 위해 주변의 적부터 소탕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 가장 큰 전공으로는 양화도 전투를 들 수 있다. 양화도 전투는 김천일이 전라병사 崔遠・추의사 禹性傳・경기수사 李蕡・충청수사 邊良俊과 함께 8월 2일 400척의 배로 양화도의 적을 공격하여 200여 명을 사살하고 수급 92과를 얻는 승전한 전투이다.[66]

반면 패전하는 일도 있었다. 8월에는 김천일과 최원이 연합하여 長湍의 적을 공격하였지만 유인책에 걸려 김천일 등이 겨우 몸만 빠져나왔다.[67] 또 化藏浦에서는 최원의 군사가 먼저 도망가는 일이 있었고, 金浦에서도 우성전이 기약을 어겨 별다른 전과 없이 돌아온 적도 있었다.

강화에서의 유둔이 장기화되고 의병 활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비변사에서는 도성이 수복되지 않고 있음을 들어 김천일에게 出陸을 재촉하였고 선조 또한 '강화는 진취적인 곳이 아니므로 속히 下陸'하라는 명을 내렸다.

조정의 도성 수복 의지는 확고하여 비변사에서는 도원수 權慄로 하여금 김천일 등을 거느리고 도성을 공격할 계획을 세운다.[68] 김천일은 일단 임환에게 수백의 군사와 함께 권율의 진에 합류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상소를 올려 자신이 강화에 주둔하게 된 전략적 이유를 밝힌다.

---

64)「宣祖實錄」25년 7월 24일 '倡義使金千鎰遣其幕下士梁山璹 郭賢等持狀啓赴行在'

65)『健齋集』부록 권1 「諭湖南士民敎書」한국문집총간 47권, 24쪽

66)「宣祖實錄」25년 9월 15일 '全羅道兵馬節度使崔遠 八月初六日 與義兵將金千鎰 江華府使尹湛 月串鎭僉節制使李蘋等,乘船進擊 賊退入土城 諸軍射殺二百餘人 斬獲首級九十二顆'

67)「宣祖修正實錄」선조 25년 8월 '崔遠 金千鎰出兵擊長湍賊 屯賊誘引登陸 伏兵掩擊 官軍大敗 千鎰等僅以身免 單舸奔還 潛送人戰所 招集亡卒 得千餘人 自是 不敢出陸'

68)「宣祖實錄」25년 11월 3일 '令權慄直向京城 又令崔遠 金千鎰 禹性傳等 統率諸義兵 與慄合勢 或爲聲援 或爲掎角 一時齊進 則庶可濟事 而江華形勢 登舟出陸 臨時遲滯 慮或失期 不得已前期出陸結陣 通議兵機 然若無高彦伯 洪季男 則京城人心 難以係屬 而先登突擊 爲諸軍倡者 必賴此等人'

엎드려 생각하건데 신이 외로운 섬에 入據함은 군사를 끼고 스스로를 방위하려는 것이 아니라 처음 남에서 끌고 온 향병이 半千도 되지 않고 열읍이 움직이면 잘못이 생겨 畿甸이 다 적의 소굴이 되었으나 오직 강화 한 구역이 산과 바다의 험함과 안팎으로 요충을 끼고 북은 漢京으로 통하였으며, 서로는 송도를 접하였으므로 고인이 적의 상류를 점령하여 그 목을 죄고 뒤에서 공격한다는 곳입니다. … 신이 여기에 유둔함은 진실로 천박한 계획이 아닙니다.[69]

강화 유둔이 결코 保身의 수단이 아니라 도성 주변의 적을 견제하는 전략임을 설명한 것이다. 결국 김천일은 이 상소로 혐의를 피할 수 있었으며 비변사에서도 도성 수복 작전을 보류한다.[70] 또한 김천일 의병이 강화도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충청・전라・평안・황해 4도가 행재소와 서로 통할 수 있었으며, 그 지역의 백성들을 안도시켜 국가의 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71]

그러나 강화 유둔이 편한 것만은 아니었다. 도성 함락 이후 피난민들이 강화도로 몰려오기 시작하자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겨울이 오자 상황은 더 절박해졌다. 飢寒까지 겹친 것이다. 김천일은 대민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정에 품의하였지만 뚜렷한 방도를 찾지 못한다.[72] 김천일의 건강도 악화되어 자신의 의병을 이빈에게 귀탁하려 하였으나 軍情이 흔들릴까 염려되어 허락받지 못했다.[73]

---

69)『健齋集』권1 「壬辰疎」 '伏以臣之入據孤島 非欲擁兵自衛也 初自南來 提鄕兵不滿半千 而列邑動輒矛盾 畿甸盡爲賊藪 惟江華一區 掖山海之險 控內外之衝 北通漢京 西接松都 古人所謂據賊上流 扼吭拊背者也 故依險負固 欲如諸葛之劍閣 給饋不絶 欲如蕭何之關中 嬰城伺釁 欲如田單之卽墨 扼江制敵 欲如乙支之薩水四者之勢 共集於此 臣之留屯 固非淺淺計' 한국문집총간 47권, 11쪽

70)「宣祖實錄」25년 12월 15일 '備邊司啓曰 伏見金千鎰書狀, 及時渡江, 與南兵合勢掎角, 策之上也 而一渡江面, 則所謂老師之潰散, 流民之不從, 寒士之凍死, 戰馬之飢斃, 匠工之不成, 果如狀啓所陳 而固避偸安之嫌, 終貽僨事之悔, 則亦爲失策 其進其退 利害如彼 則自此固不可强使渡江矣 但藏兵孤島 已過半年 爲賊所挫 以弱我勢 所謂養兵 其實老師 良平諸葛 不應如此 猶謂遠慮 不已顚乎 至於密納內應之人 期會東西之將 共滅京城之賊云云者 其志壯矣 更加勉勵'

71) 조원래,「임란 초기 조선왕조의 방어실태와 근왕의병」,『새로운 관점의 임진왜란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5, 106~111쪽

72)「宣祖實錄」25년 10월 4일 '點曰 金千鎰・崔遠之軍, 飢寒方切 雖不能遍給諸路之軍 而送米布於此軍 且下書通諭禹性傳 何如 上曰 此意何如 斗壽曰 獨送於江華 似爲未穩 上曰 給則盡給 可也 聖民曰 有財力 則莫如盡給'

73)「宣祖實錄」26년 1월 10일 '備邊司啓曰 倡義使金千鎰上疏 自以身有重病 恐難支保 請與水使李蘋同事 以爲義旅歸托之計 此必出於情勢之切迫 然千鎰方謀大事 又値機會 不可辭以疾患 以搖軍情 愼加調護 鎭撫將士 速成大功'

의병과 관군 사이에 마찰도 심해져 갔다. 관군과 의병의 대립은 의병의 성군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74] 관군 측은 백성들이 의병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고 의병을 관군에 강제로 편입시키기도 하였다. 당연히 서로 간에 협조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 관군의 영은 의병이 따르지 않고 의병의 공은 관군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 따르는 군사는 작은데 영을 내리는 관은 많아 다투어 맹주가 되려고 즐겨 서로 양보하지 않고 여기서 영을 내면 저편이 흔들리고 저편에서 영을 내면 여기가 흔들려 군민이 현혹되어 따라갈 바를 모릅니다. … 통솔을 하는 관에 일러 오직 한 장수를 가려 원근의 관군과 대소의 의병이 한 호령을 듣고 피차가 서로 응하며 수미가 서로 원조한다면 회복할 수 있는 공이 가능할 것입니다.[75]

의병과 관군의 불화와 令出多門의 폐단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으로 지휘계통을 하나로 만들자고 제시한다. 선조 25년(1592) 말경에는 평안도에 柳成龍, 하삼도에 鄭澈, 경기・황해・강원도에 兪泓, 의병절제에 沈守慶 등 4명의 도체찰사가 임명되어 군병을 절제케 하였지만, 이들이 모두 평양과 서울 사이에서 체찰 업무를 수행하여 오히려 군령 및 군사지휘권이 중첩될 우려가 커졌다.[76]

이 시기 김천일은 전란으로 방치되어있던 왕릉 보호 문제에까지 관심을 기울인다. 그는 적장이 왕릉을 도굴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家禮』와 『五禮儀』를 보내 부장품이 없음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군사를 성 안에 잠입시켜 文昭殿의 位版을 강화에 가져와 강화에 奉安하기도 하였다.[77] 그의 이러한 활동은 근왕의병의 성격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며 전란으로 실추되었던 왕실의 권위를 높일 수 있었다.[78]

---

74) 송정현, 「임진왜란론 -관군과 의병의 역할문제-」, 『전남사학』 8권, 1994, 44쪽

75) 『健齋集』 권1 「癸巳疎」 '官軍之令 義兵不從 義兵之功 官軍不悅 … 從軍之兵小 而出令之官多 爭欲主盟 不肯相下 此出一令而彼搖之 彼出一令而此撓之 軍民眩然 莫適所從 … 惟擇一將 遠邇官軍 大小義兵 咸聽號令 彼此相應 首尾相援 則恢復之功 庶幾可望矣' 한국문집총간 47권, 22쪽

76) 심승구, 「임진왜란의 발발과 동원체제의 재편 -조선군 지휘체제를 중심으로」,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188~190쪽

77) 「宣祖修正實錄」 선조 25년 11월 '文昭殿位版 初瘞于殿內 金千鎰募人入城 潛取以來 奉安于江華 亦命賞應募人'

해가 바뀌고 날이 풀리자 김천일은 도성 수복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먼저 도성 인근의 적을 소탕하기 위해 경기수사 이빈·충청수사 정걸과 더불어 仙遊峰과 沙峴에서 적과 싸워 크게 승리한다. 그리고 권율이 주도한 행주대첩에서도 이빈·정걸과 함께 한강을 막아 승리를 거두는데 일조한다.[79] 또 평양 수복되자 김천일은 화공을 시켜 도성 인근의 형세와 도로 사정, 적의 상황 등을 그려 명나라 제독 이여송에게 전달하여 도성 수복전을 준비했다.

일본군이 도성을 버리고 후퇴하자 김천일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전부터 도성의 백성들을 회유하기 위해 노력해온 김천일은 적에 협력한 백성의 사정을 이해해주고 빠르게 민심을 안정시켜 나간다. 또 유민들을 위하여 곡식을 풀어 백성을 구휼하니 도성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고 한다.

이즈음 禁討牌文이 내려지고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화의가 논의되기 시작한다. 김천일은 분개하여 明將 李如松에게 강화의 부당함을 진술하였다. 정철에게도 편지를 보내 '우리 무리의 죽을 곳조차 알 수 없으니 통곡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80]고 울분을 드러낸다.

3. 제 2차 진주성 전투

남해안으로 주력군이 총퇴각한 일본군은 수륙 양면에서 조선군의 압박을 받기 시작한다. 일본은 축성을 통해 점령지 수비를 강화하여 조선군의 원정을 어렵게 만들고자 하였다. 아울러 일방적으로 후퇴한 것이 명과의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염려하여 아직 일본군이 건재함을 알리는 무력시위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81]

또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李舜臣과 金時敏에게 패한 것을 분하게 생각하여 진주를 공격하고 호남을 침범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82] 그는 선조 26년

78) 조원래, 「김천일의 의병활동과 그 성격」, 『사학연구』 제31호, 한국사학회, 1980, 45쪽
79) 「宣祖修正實錄」 26년 2월 '官軍分據畿內 以權慄軍爲首 出沒鈔賊 賊不得遠出樵採 倡義使金千鎰 全羅水使李蘋 忠淸水使丁傑以舟師 進京江口, 下道官 義兵邀截賊路 賊勢漸挫'
80) 『健齋集』 권3 「與鄭松江書」 '吾輩之死 不知其所' 한국문집총간 47권, 17쪽
81) 이상훈, 「임진왜란 중 경남 서부지역의 전투지역 고찰」,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160~163쪽
82) 「宣祖修正實錄」 선조 26년 6월조 '日本攻打晋州之意 彼因去歲 於此被殺甚多 且船隻盡爲毁燒 是以忿狠不平 況貴國兵使屢殺日本削草之兵'

(1593)년 2월과 3월, 4월 계속해서 진주성 공격 명령을 하달하였고, 이에 따라 일본군은 총력을 동원해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진영에 머물며 화의를 주도하고 있던 沈惟敬에 의해 조선군 진영에도 전해졌다.

이 소식을 접한 조선의 관군과 의병은 경상남도 의령에 집결하였다. 權慄은 행주대첩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곧장 진주성으로 진격하려 하였으나, 郭再祐와 高彦伯은 '지금 日本軍의 세력은 성대하고. 아군은 오합지졸이 많아 전투를 감당할만한 자가 적으며 군량도 없으니 경솔하게 전질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며 권율을 제지한다.[83]

그리고 진주만 점령하면 적이 물러날 것이라는 심유경의 제안에 따라 空城策을 쓰자는데 의견이 모아진다. 宣居怡와 洪季男은 운봉에 진을 쳤으며, 곽재우는 정암진으로 돌아가 진주성 점령 이후 호남으로 진출하려는 일본군을 견제하기로 한다.

선조 26년(1593) 5월 남하하는 왜를 추격하여 물리치라는 교지가 김천일에게 내려진다.[84] 김천일은 병석에서 분연히 일어나 '내가 죽을 곳을 얻었다'며 겨우 수백명의 병사만을 거느리고 남하한다.[85] 대세가 空城策으로 기울어지자 김천일은 '진주가 없으면 호남도 없다'며 홀로 守成策을 주장하고 다른 장수들을 설득하려 한다.

> 왜적의 계략은 헤아리기 어려우니, 진주만 공격한다는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대저 진주는 호남과 매우 가까워 마치 입술과 치아와 같다 하겠소. 만일 이곳을 버리고 가서 왜적들을 승승장구하게 만든다면 화가 반드시 호남에까지 미칠 것이니, 힘을 합쳐 견고하게 지켜서 왜적의 세력을 막는 것이 나을 것이오.

그러나 여러 장수들은 호응하지 않았으며, 明軍 또한 방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당시 부총병 劉綎과 유격장 吳惟忠은 대구에, 부총병 王必迪은 상주에, 참장 駱尙志와 유격장 宋大斌은 남원에 주둔하며 심유경과 고니시 유키나가 사이에 화

83)『懲毖錄』'初朝廷聞賊南下 連下旨督諸將追賊 都元帥金命元 巡察使權慄以下官義兵 皆聚於宜寧 慄狃於幸州之捷 欲渡岐江前進 郭再祐高彦伯曰 賊勢方盛 我軍多烏合 堪戰者少 前頭又無糧餉 不可輕進 他人依違而已'

84)「宣祖實錄」선조 26년 5월 2일 '義兵將如金千鎰之輩 各率其軍 追賊南下 聽元帥節制進退'

85)『健齋集』부록 권4 「行狀」'吾得死所矣 時部曲爲諸軍門所移奪幾盡 收合數百人 南下' 한국문집총간 47권, 51쪽

의가 교섭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천일은 6월 14일 진주성으로 들어간다. 김해부사 李宗仁이 가장 먼저 입성해 있었으며 경상우병사 崔慶會・충청병사 黃進・거제현령 金俊民・조방장 鄭命世・사천현감 張潤・복수의병장 高從厚・의병장 李繼璉・표의병부장 姜希輔 등이 입성하였으며, 18일에는 姜希悅・李潛이 수성을 위해 차례대로 진주성에 들어왔다.[86]

진주성은 천연의 요새로 남면은 남강에 접한 험준한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실상 침략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서북면 또한 濠가 있어 적의 진입이 쉽지 않아 오직 성의 동쪽만이 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어 쉽게 함락될만한 곳은 아니었다. 김천일은 최경회와 상의하여 군사를 정비하고 수성 계획을 세우고 한편으로 양산숙과 홍함 등을 유정에게 보내 원병을 요청하였다.

당시 진주성에 있는 군사는 약 3600명으로 성을 지키기에는 부족했으며, 士女를 모두 합해 6~7만이 있을 뿐이었다.[87] 부족한 군사로 성을 지키기 위해 東西北 삼면은 비교적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의병이 지키고 황진・이종인・장윤은 관군을 이끌고 급박한 곳을 구원케 하는 전략을 세운다.[88] 또한 김천일과 최경회가 都節制가 되어 김천일은 의병을 최경회는 관군을 통솔하기로 하였으며, 황진이 巡城將이 되는 것으로 지휘계통도 확립하였다.[89]

선조 23년(1593) 6월 21일 마침내 진주성 앞에 적이 나타나 성을 포위하는 것으로 전투가 시작된다.[90] 일본군은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 고니시 유키나가(小西

---

86)「宣祖實錄」선조 26년 7월 10일 '倡義使判決事金千鎰馳啓曰 臣卽於今月十四日 到晋州城中 牧使徐禮元 以天兵支待出去 初昏還來 待變諸事 相與講定 十五日 全羅兵使宣居怡 助防將李繼鄭 忠淸兵使黃進 助防將鄭名世 京畿助防將洪季男 慶尙右兵使崔慶會 復讐義將高從厚等 相繼馳到 翌日 全羅巡察使權慄 傳令全羅兵使 各項將領等 竝爲出來 諸將一時馳出 城中洶懼 事爲漏出 臣與崔慶會 黃進等 艱難收合 而竝不過三千餘名 城子廣闊 軍卒如此飢餒之餘 防禦未易 極爲悶慮 大槪晋州 實是全羅保障 巡察以下 撤其蔽遮 移去山陰 尤極悶慮云'

87)『白沙記事』에는 김천일 300명, 황진 700명, 최경회 500명, 고종후 400명, 장윤 300명, 이계련 400명, 이잠 300명, 민여운 200명 등 총 3100명의 군사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진주서사(晋州敍事)』에서는 김천일 500명, 최경회 600명, 황진 700명 고종후 400명, 장윤과 이잠이 각각 300명, 이계련, 민여운, 강희보 강희열이 각각 200명 등 총 3600명의 군사와 兵民 士女를 합해 6~7만이 있었다고 나와 있다.

88)『晋州敍事』'分城而守 以城南矗石樓最爲險絶 賊不敢犯 惟東西北三面受賊可虞 令義兵守之 黃進 李宗仁 張潤各率數十人 隨賊所薄 往來相救'

89)「宣祖修正實錄」선조 26년 6월 '金千鎰 崔慶會爲都節制 千鎰統義兵 慶會統官兵 黃進爲巡城將 諸道官義兵畫地分守 戒嚴待變'

90)『健齋集』부록 권3 「年譜」선조 26년 '二十一日辰時 賊數十騎出沒東北山上 窺覘而去 巳時 又數百騎列

行長)를 필두로 한 총 92,927명의 대군이었다.[91] 그리고 경상남도 김해부터 진주성까지 주둔성을 연결하기 위해 부산포에 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 동래성에 마에노 나가야스(前野長康), 김해 죽도성에 모리 시게마사(毛利重政), 기장성에 가메이 고레노리(龜井玆矩), 거제도에는 하치스카 아에마사(蜂須賀家政)를 배치하였으며, 구키 요사타카(九鬼嘉隆)는 가덕도에서 조선 수군의 응원을 차단하고 있었다.

일본군은 촉석루가 있는 성의 남쪽은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먼저 북서면 있는 호의 물을 터트려 흙과 모래로 메우고 동서북 삼면으로 공격하기 시작한다. 25일에는 동문 밖에 토성을 만들자 성안에서는 현자총통을 쏘아 일본군에 대항하였으며 황진의 독전으로 4번 싸워 4번 모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26일 일본군은 木櫃에 생가죽을 둘러 탄환과 화살을 막으며 북쪽의 성벽을 허물려 하였고, 鐵甲車를 고안하여 공격하였으나 이종인 등의 분전으로 실패한다.

이 과정에서 황진·이종인·장윤의 활약이 두드려졌다. 이들이 각기 군사를 이끌고 돌아다니며 위기에 빠진 곳을 구원함으로써 성을 지켜낼 수 있었으며, 특히 장윤은 적의 공격에 놀라 쓰러진 徐禮元을 대신해 假牧使의 소임을 잘 수행하기도 했다. 한편 김천일 또한 병으로 걷기조차 불편하였지만, 가마를 타고 성을 돌아다니며 의병들을 통제하고 독전하였다.[92]

거듭되는 공격에도 성이 함락되지 않자 일본군은 화공과 심리전을 펼쳤다. '대국의 군대도 항복하였는데 너희 나라가 어찌 감히 항거 하는가'라는 내용의 글을 성안에 쏘아 보내 군사들을 동요시켰다.[93] 이 틈을 타 적이 다시 언덕을 쌓고 공격하자 강희보가 이를 막다 전사하였다.[94]

밤낮으로 계속되는 적의 공격에 병사들은 지쳐가고 장마로 인해 궁시가 풀어지

陣耀兵 選精兵擊斬十餘級 俄而賊大至' 한국문집총간 47권, 40쪽

91) 北島万次,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 해군사관학교, 2008, 162쪽
일본군은 당시 나베시마 나오시게 · 구로다 나가마사 · 가토 기요마사 · 사마즈 요시히로 휘하의 병력 25,624명과 고니시 유키나가 · 소 요시토시 휘하의 병력 26,182명을 제 1군으로 하고 우키타 히데이에 휘하의 병력18,882명을 제 2군으로 모리 데루모토 · 고바야가와 다카카게 휘하의 병력 22,344명까지 총 92,972명으로 이루어졌다.

92) 『健齋集』 부록 권4 「行狀」'二十五日 賊於東門曲城外 築土山起屋 俯瞰城中 鐵丸雨下 城中多死傷 公令諸軍對築土山 黃公進親負土石 士卒莫不盡力 須臾與賊土山齊 放玄字筒 中賊山屋 屋破賊多死 … 公素病濕不能行步 乘小輿巡城 日夜不輟 親持粥糜分饋 士卒莫不感激致死' 한국문집총간 47권, 52쪽

93) 「宣祖實錄」 선조 26년 7월 16일 '賊以書投城中曰 大國之兵 亦且投降 爾國敢爲抗拒乎'

94) 『晋州敍事』 '遂築五阜於東西兩門外 結竹爲柵而放丸 姜希輔力戰死之'

는 등 악전고투가 지속되었다. 28일에는 서예원이 야간 경비를 소홀히 한 틈을 타 적이 성을 뚫어 침입하여 황진이 이를 막았으나 탄환에 맞아 전사한다.[95]

29일 장맛비로 무너진 동문 성벽으로 일본군이 난입하여 이종인, 이준민, 이잠 등이 성안에서 군사들과 더불어 결사항전을 했으나 역부족으로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이때 김상건・양산숙은 김천일을 문홍헌은 최경회를 오빈・김인혼・고경형은 고종후를 부축하고 촉석루에 모여 북향재배한 뒤 남강에 투신하였고 이종인은 마지막까지 싸우다 적 두 명을 옆구리에 끼고 남강에 투신한다.[96] 진주성이 함락되는 날 김천일과 최경회, 황진이 촉석루에 모여 죽음을 맹세한 시가 남아있다.

「把酒誓死」

장한 세 선비 촉석루에서	矗石樓中三壯士
술 한 잔에 웃으며 강물을 가리키네	一杯笑指長江水
강은 길고 물길은 넘쳐나는구나	長江之水流滔滔
물결이 마를까 혼백은 살겠지	波不渴兮魂不死

제 2차 진주성 전투의 결과 진주성이 함락되자 일본군은 조선 軍民을 학살하고 성의 파괴하여 평지로 만든다. 그리고 일본군은 진주성을 함락시킴으로써 그들의 일차적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이때 입은 막대한 병력손실과 그로 인한 전략상의 차질로 인해 호남공략이 좌절되었다.[97]

4. 의병활동의 의의와 평가

일본군은 제 1차 진주성 전투에서 김시민에게 당한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성을 함락시키고 수만 명의 백성을 도륙한 후 호남으로 진격한다.[98] 조선군은 애초 鼎

95)「宣祖修正實錄」선조 26년 6월조 '黃進故相喜五代孫 勇健善射 嚴重忠信 氣節過人 從通信使入日本 見賊情必動 捐囊買寶劍一雙 歸曰 不久賊來 當用此劍 爲同福縣監 每衙罷 輒擐甲馳馬 或距躍曲踊以習勇 龍仁之敗 進將別部 獨全軍以還 湖峙之捷 功爲第一 初至晋州 欲出爲外援 金千鎰特留之 或以爲 忠淸兵使非干守晋 戰于外可也 進曰 吾已與倡義公約 不可負也 自倭亂以後 凡諸將之行軍有法 身先士卒 有古名將風者 皆推進爲首 而不得究其才而死 朝野莫不追惜 贈右贊成'

96)『晋州敍事』'又自西北門 揮劍踊躍而至 禮元先走 諸軍大潰 咸集於矗石樓 賊遂闌入 於是 金象乾 梁山璹 扶金千鎰 文弘獻 扶崔慶會 吳玭金麟渾 高敬兄 扶高從厚 北向再拜 赴南江而死 … 宗仁希悅宥潛等十餘人 奮劍斫賊 抵死乃已 最後宗仁轉鬪至南江 左右腋各挾一賊 大呼赴水曰 金海府使李宗仁死於此云'

97) 조원래, 「김천일의 의병활동과 그 성격」,『사학연구』제31호, 한국사학회, 1980, 54쪽

98)『晉州敍事』'七月初二日 賊發向湖南 前鋒將六毛里, 鹿加末等一軍至河東 一軍至石柱 有一賊酋爲淸正謀曰

津과 山邑, 雲峰 등에 진을 치고 분산 작전을 펼쳐 호남을 방어하려 하였다.[99] 그러나 진주성이 함락되고 적의 대군이 밀려오자 일시에 후퇴해버린다.

일본군은 7월에 단성, 산음, 구례, 광양, 남원, 순천 등에 진격하여 노략질을 자행하였다.[100] 진주성이 무너지면 일본군이 호남으로 진격할 것이라는 김천일의 예상이 적중한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진주성을 지켜 호남을 보호하려고 한 김천일의 의견은 전략적으로도 옳은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안방준은 『晉州敍事』에서 김천일 등의 활약으로 호남이 지켜질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광양에서 明軍에 원병을 요청하기 위하여 나갔다가 일본군의 포로가 된 林遇華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晉州敍事』를 저술하여 다음과 같이 진주성 전투의 의의를 설명한다.

> 공이 진주성에서 죽은 것을 두고 헛되이 사람 목숨을 죽였다 하니, 아! 슬프다. 이 성을 쌓고 연못을 파서 장차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떠나려 한 것인가? 더구나 공이 진주를 지키지 않아 적의 예봉을 꺾지 못했다면, 곧 호남의 50여 성이 어육을 당함은 진주성보다 훨씬 심하였을 것이다. 한도의 인명의 수효가 어찌 한 성의 백성의 목숨과 같겠는가?[101]

그러나 최근까지 제 2차 진주성 전투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유성룡은 자신의 저서인 『懲毖錄』에서 진주성 실함의 원인을 김천일의 실책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김천일은 경성의 市井에서 소모한 무리를 이끌었는데 兵事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주장이 너무 심하였고 평소 서예원을 미워하여 주객이 시기하게 되니 호령이 엇갈렸고, 이로서 심하게 패하였다'라고 하였고 '적이

攻城十日 精銳挫甚 不可以此 得志湖南 休兵爲善 淸正然之 卽令撤回'
『黑田家譜 朝鮮陣記』에도 1593년 5월 1일 히데요시가 진주성을 공격한 후 전라도로 진격할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北島万次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 해군사관학교, 2008, 154쪽)

99) 강문식「실록을 통해본 곽재우의 의병활동」,『규장각』33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8, 103쪽

100)『宣祖實錄』 선조 26년 7월 16일 '城旣陷 賊分數起 一起向丹城 山陰 一轉入智異山 一起直出本州西面 與智異山賊合勢 散入求禮 光陽 南原 順天 搶掠閭里'

101)『晉州敍事』 '以公之死於晉州'爲徒殺人命 噫 築斯城 鑿斯池 將使委而去之耶 況公不守晉州 賊鋒不挫 則湖南五十城之魚肉 必有甚於晉城者 一道人命之多小 孰如一城之民命哉'

거의 퇴각하게 되었을 때 천일의 군사들은 북문을 지키다가 성이 이미 무너진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 제일 먼저 무너져 흩어져버렸다'고 진주성 전투를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진주의 함락은 모두 김창의의 실책으로 말미암을 것이고 또 죽음에 임하여 통곡을 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 한 것 같다'고 하여 안방준과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편으로 『선조실록』은 '김천일은 도량이 편협하고 재략이 천단하니 어떻게 난을 평정하고 시대를 구할 재목이었겠는가'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유성룡 또한 선조의 물음에 '그의 성질이 또한 실로 오활하고 옹졸하였다'고 말하였다.[102]

유성룡은 제 2차 진주성 전투 당시 4도 도체찰사에 있었지만 경기·황해·평안·함경 4도를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상도에서 일어난 일을 어느 정도 소상히 파악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懲毖錄』의 기록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103]

또 김천일이 성혼·정철 등과 가까운 서인계 인물인 점을 감안할 때 유성룡이 동인의 영수였던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懲毖錄』에서 변호하고 있는 서예원은 동인의 영수인 서인원의 동생으로 선조18년(1585) 회령첨사로 있을 때 크게 패한 적이 있었다.[104] 또 진주성 전투 당시에는 겁을 먹고 당황하여 장윤이 그 소임을 대신하는 등 지휘관으로써 자질이 부족하였다.[105]

이것은 안방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안방준이 성혼의 문인으로 서인계 인물이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그 또한 같은 서인계인 김천일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취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안방준은 '서애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왜구가 남해에 침범한 이듬해 화의하게 되었을 때, 김천일이 유성룡에게 화의가 그릇되었음을 극언'한 적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106]

---

102)『宣祖實錄』 선조 27년 3월 무술 '千鎰器量褊隘 才略短淺 豈是撥亂濟時之材乎 … 成龍曰 奚暇鍊兵 且性實迂拙矣'

103) 조원래,「김천일의 의병활동과 그 성격」,『임진왜란과 호남지방의 의병항쟁』, 아세아문화사, 2001, 151~152쪽

104)「宣祖修正實錄」선조 18년 12월조 '會寧甫下鎭徐禮元 率兵八十餘騎 渡江偵賊巢 深入胡地 爲胡所敗 禮元潰圍走還 命竄于鍾城'

105)『宣祖實錄』 선조 26년 7월 16일 '牧使徐禮元 畏怯顚倒 金千鎰以義兵副將張潤爲假牧使'

106)『晉州敍事』'西崖徵毖錄 以爲晉州之陷 全由於金倡義失策 又以爲臨死痛哭 若畏死者然 西崖之意 未知何故 … 丁亥春鹿島萬戶李大源之死 公抗疏 宣廟戊子夏 平酋求和 公貽書柳相西崖 極言防禦之策 許和之非'

진주성이 무너지자 조정에서는 선전관을 보내 사태를 수습하고 상황을 보고하게 한다. 당시 도체찰사로 있던 柳成龍은 치계를 올려 패전의 원인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진주목사인 서예원이 늦게 입성하여 수성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둘째, 여러 제장을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 명령에 혼란이 있었고 셋째, 조선군의 후퇴로 적이 승세를 타게 하였으며, 적이 길을 막아 원병을 보낼 수 없었던 점을 네 번째로 들고 있다.[107]

이 중 가장 큰 원인으로는 외원이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 1차 진주성 전투 때는 곽재우・조응도・정유경・김준민・정기룡・최경회 등이 성 밖에서 응원군을 이끌고 적의 배후를 교란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 2차 진주성 전투에서는 외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적이 진주만 점령하면 물러날 것이라는 沈惟敬의 말에 空城策이 대세를 이루자 김명원・한효순・곽재우・임계영 등은 호남 등지로 후퇴하여 적의 후방을 교란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군대가 존재하지 않아 일본군은 진주성 공략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성 준비 과정에서 이미 김천일은 의병을 절제하고 최경회가 관군을 절제하는 것으로 지휘 계통을 확립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혼란도 없었을 것이다. 이 결과 김천일 등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진주성을 9일간이나 사수할 수 있었고 함락의 직접적인 원인 또한 장마로 인해 성벽이 무너진 것이지 결코 누구 한 사람의 실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진주성 함락을 직접 조사보고한 체찰사 李恒福은 『白沙記事』에서 김천일을 '三難을 이룬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3難이란 진주성이 위급할 때 가장 먼저 입성한 것, 관군이 떠날 때 오히려 진주성을 사수할 것을 결심한 점, 성이 함락되던 날 조용히 殉義의 길을 선택하였다는 점이다. 明將 吳宗道 또한 '부끄러움 없이 여전히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비록 살아 있을지라도 어찌 장군의 죽음만 같으리오'

107) 『宣祖實錄』 선조 26년 7월 21일 '豐原府院君柳成龍馳啓曰 晋州之陷 雖因賊兵浩大 策應之失 亦爲可慨 臣在京時 牧使徐禮元 以天兵支待差使員 來在咸昌 卽移文以爲 晋州朝夕將被兵 守城之官 豈宜遠出 使速還送, 而遷延不還, 及聞賊已迫, 然後僅得入城, 防備等事, 不能預先措置, 一也。 且其諸將率客兵, 多聚一城 而無統制之人 各執所見 未免紛難 二也 諸將當初 不量事勢 輕爲進陣於咸安 及賊兵大至 狼狽奔還 賊乘勝 三也 鼎津若列軍固守 則賊或不敢西面俱進 而率皆棄去 賊兵水陸俱進 晋州未陷之前 宜寧 三嘉 丹城 鎭海 固城 泗川之地 賊皆雲合 援兵路斷 四也'

라고 김천일을 제사 지냈으며, 선조 28년(1595)에 진주민들은 최경회・황진・장윤 등과 같이 진주 彰烈祠에 배향하여 그의 뜻을 기리고 있다.

맺음말

明宗代 외척 尹元衡과 李樑이 국정을 농락하고 사림을 탄압하자, 일군의 학자들은 향리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제자를 양성하며 미래를 준비하였다. 곧 학풍과 공부하는 방법에 따라 학파가 형성되었으며 호남에서도 金麟厚・盧守愼・李恒 사이에 학문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학문이 활성화되고 있었다.

이 시기 김천일은 이항의 문하에서 수학하며, 이항의 소개로 김인후와 노수신을 역방하고 학문을 익혔다. 김천일은 노수신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음을 虛靈知覺의 본체로 생각하고 理와 氣를 지각하는 것이 人心・道心이라는 주희의 人心道心說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것은 이항의 견해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는 유일로 천거되어 관직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이후에도 朴淳을 비롯하여 成渾・鄭澈・高敬命 등 주로 西人계 인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김천일은 당시 화담계열을 대표하는 학자인 鄭介淸과도 禮論을 둘러싸고 갈등 대립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己丑獄事가 일어나자 온건한 자세를 가지고 옥사가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혼·정철 등에게 편지를 보내 간청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그는 나주 서인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고,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호남에서 처음으로 의병을 모집하여 北上할 수 있었다. 그의 의병활동은 강화도에 주둔한 시기와 제 2차 진주성 전투로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김천일은 강화도에 유둔하면서 난민 구휼과 왕릉 보호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공을 세웠다. 그가 강화도에 주둔함으로써 충청・전라・평안・황해 4도가 통할 수 있게 되어 국가의 맥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진주성을 지킴으로써 호남을 보전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제 2차 진주성 전투 당시에는 空城策이 대세를 이룬 가운데 김천일은 '진주가 없으면 호남도 없다'며 守城策을 주장한다. 실제 일본군은 성이 함락되자 전라도 일대에 진출하였으며 조선군의 분산 방어 계획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천일의 수성 전략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패전과 관련하여 柳成龍과 安邦俊 사이에 김천일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존재한다. 유성룡은 『懲毖錄』에서 진주성 함락은 김천일의 실책으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안방준은 『晉州敍事』에서 김천일 등의 죽음으로 호남이 지켜질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는 이항 계열의 학자들은 학문적으로 비슷한 서인 계열에 흡수되었으며 김천일 또한 당론에서도 서인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성룡과 안방준이 속한 당파의 입장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明宗實錄』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健齋集』, 한국문집총간 47책, 1996

『蘇齋集』, 한국문집총간 35책, 1989

『愚得錄』, 한국문집총간 40책, 1989

『一齋集』, 한국문집총간 28책, 1988

『隱峯全書』, 한국문집총간 80~81책, 1992

『河西全集』, 한국문집총간 47책, 1989

『懲毖錄』, 서애선생기념사업회, 2001

고영진,『조선시대 사상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풀빛, 1999

이종범,『사림열전』1, 아침이슬, 2006

정구복 외,『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조원래,『임진왜란과 호남지방의 의병항쟁』아세아문화사, 2001

_____,『새로운 관점의 임진왜란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5

北島万次,『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해군사관학교, 2008

강문식,「실록을 통해본 곽재우의 의병활동」,『규장각』3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8

고영진,「16세기 湖南士林의 활동과 학문」,『남명학연구』3, 경상대학교 남명학 연구소, 1993

고영진,「하서학과 호남사림의 동향」,『국학연구』7, 한국국학진흥원, 2005

김동수,「기축옥사와 호남 사림」,『기축옥사 재조명』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제2회 학술심포지엄, 2009

김문택,「호남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 -나주 경현서원을 중심으로」,『국학연구』11, 한국국학진흥원, 2007

김성우,「선조대 사림파의 정국 장악과 개혁노선의 충돌」,『한국사연구』132, 한국사연구회, 2006

김수업,「시조 '태산이 높다 하되...'의 지은이에 대하여」,『배달말』14, 배달말학회, 1989

송정현,「임진호남의병 기병고」,『전남사학』3, 전남사학회, 1989

_____, 「임진왜란론 -관군과 의병의 역할문제-」,『전남사학』8, 1994

신병주,「16세기 남명 조식의 사상 형성과 현실 대응」,『한국사상사학』31, 한국사상사학회, 2008

오병무,「하서 김인후의 싱리철학」,『동양철학연구』36, 동양철학연구회, 2004

정대환,「一齋 李恒의 性理學(一)」,『동서철학연구』25, 한국동서철학회, 2002

_____,「一齋 李恒의 性理學(二)」,『哲學硏究』96, 대한철학회, 2005

정병련,「一齋 李恒의 理氣一物說 辨證」,『汎韓哲學』9, 汎韓哲學會, 1994

조성을,「노수신의 학문과 정치활동」,『남명학연구』3, 1993

조원래,「김천일의 의병활동과 그 성격」,『사학연구』31, 한국사학회, 1980

_____,「임란기 호남의병과 의병지도층의 성격」,『북악사론』1, 북악사학회, 1989

한춘순, 「명종대 을사사화 연구」,『인문학연구』2,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8

_____,「명종 친정기의 권력관계 변화와 정국동향」,『조선시대사학보』12, 조선시대사학회, 2000

허선도,「임진왜란론」,『한국사학론총』, 정음문화사, 1985

황구하,「소재 노수신의 심학」,『양명학』10, 한국양명학회, 2003